

투데이칼럼

아프지 말아야 한다! 다치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 한다!

정 부가 올 초 “의대 정원 을 2,000명 일시에 증원 한다”고 발표한 이후, 정 부의 예상과는 달리 의료계(관 련 전·후방 업계, 의학 과학 연 구, 실협 등 포함) 전반에 걸쳐 대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들이 직 장인 병원과 환자를 두고 떠났다. 여러 졸업안이 오갔지만, 180 도 선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대립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은 “얼마 동안 저 러다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 지만, 현재까지도 요지부동이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비 용과 긴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실마 의 사직을 포기하겠느냐는 기대와 달리 그들은 현재로서는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수능을 다시 준비한다 고도 하고, 급료를 줄여서라도 일반 병·의원에 취직하거나, 해 외로 취업을 나가고 있다고 한 다. 또 다른 길로 새로운 인생을 추구하는 의사들도 있다. 당장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증원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단계적으로 증원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윤 희

파시코 대표이사

이런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더라도 동네 구멍가게 도 이처럼 무계획적으로 운영하 지 않는다.

구상하고, 두드려보고, 다리를 건너기 전에 다리를 두드려보 는 것이 상식적인데, 국가의 중 요한 의료 문제를 이렇게 거칠 게 무모하게 처리해도 되는 것 인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 이나 망우보리(亡牛補牢: 소 잃 고 외양간 고친다)가 현실이 되 고 있다.

△해부학교실에서의 경험

필자는 대학원 시절 한 학기 동안 의대에서 해부학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다. 첫 시간부 터 해부용 시신인 카테바 (cadaver, 시체)를 앞에 두고 해 부학 강의가 시작되었고, 학기 마지막 강의가 끝날 때까지 긴

장을 놓을 수 없었다.

카테바 한 구에 6~8명이 배정 되어 실습을 진행했는데, 그 인 원도 많은 편이었다. 신체의 세 부 조직을 관찰하며 해부용 칼 (메스)을 잡고 실습을 하다 보면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였다.

이렇게 어려운 실습을 6~8명 이 직접 하기는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었다. 2~3명 또는 3~4 명은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을 어깨 너머로 쳐다보며 수업 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환자의 준비 없이 의대 정원을 증원한 다면 과연 가능할까? 원만하게 진행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의사 육성 제도는 거의 도제식 에 가까운데, 교수, 전임의, 전문 의, 조교, 실습실, 장비, 도구, 재 정 문제, 학사 일정 등 관련 항

목이 수두룩하다. 과연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 착착 갖춰질 수 있을까? 선배들 이 없는데 후배들은 누구에게 배울 것이며, 교육의 질은 어떻 게 될까?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 게 돌아갈까?

△대형병원 응급실의 상황 우선 응급의학 전공의 숫자가 태부족이다. 전공의와 수련의는 90% 이상 병원을 떠났다. 겨 우 남아 있는 전문 인력(교수)은 휴식이 부족한 채 연속 근무와 연장 근무로 과로 상태에 놓여 있다.

119 구급대가 연락을 취해도 해당 전문의, 전공의, 수련의가 없다 보니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마땅치 않다. 운이 좋아 응급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가 더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교 수 한 명이 많은 환자를 담당하 기에는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정부와 의료 정책 실무자들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원점에서 재논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수 의 료, 공공의료 분야부터 적절한 타협안을 도출해 우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설

금융권의 가산금리 인상

9월 1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옥죄는 2단계 스트 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시행한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 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할 예정 이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는 0.38% 포인트(p)에서 대폭 오 른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에는 0.75% 포인트, 은행 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 용된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 기도 줄어들어 대출한도는 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나머지 은행 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줄면, 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 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축소되 는 효과가 나타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소득 자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4% 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8월까지 만기 40년도 가능했기 에 스트레스금리(0.38%)를 고 려한 한도는 7억 5천400만 원 이다.

스트레스금리 2단계(1.2%)와 만기 30년을 적용하게 되면 한 도는 6억 600만 원정도로 1억 5천만 원 가량 감소한다. 은행 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대출 절벽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실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할 것이다. 신용부부, 무주택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신용대출 등 차주의 애로사항과 영업점 직원의 창 구 동향도 중요하다. 부동산 전문가의 시장 상황 진단과 가 계대출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 도 필요하다.

일본 강타 태풍 산산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 타하며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 자 다음 태풍에 대한 관심이 컸다.

특히 기상청이 올해 최대 2개 의 가을 태풍 가능성을 시사해 대비가 필요했다.

일본은 산산의 영향으로 6명 이 숨지고, 1명이 실종, 100명 이 부상당했다. 후쿠오카 공항 에 착륙하려던 여객기는 강풍 으로 회항했고 도로 도심 일부 지역에선 한때 피난 지시가 내 려지기도 했다.

규슈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 48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일본 기상청이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은 정도로 많은 비바람 을 몰고 왔다.

산산은 일본 오사카 남서쪽 약 160km 부근 육상으로 이동 하여 다음날 새벽 열대저압부 로 약화했다.

8월 마지막 태풍이 큰 상처를 남기자 9월 태풍에 대한 우려 도 컸다.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태풍이 북상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

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에 서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평균 25.1개의 태풍이 발 생하고 국내에는 3.4개의 태풍 이 영향을 미쳤다.

전국 폭염 일수가 '최악의 더 워'로 꼽히는 2018년 9월 기록 을 넘어섰고 서울의 열대야 기 록은 34일이나 됐다.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수증기 증발이 보다 원활해 불 안 정도가 커진다.

25도 이상의 뜨거운 바다를 따라 이동하며 세력을 키우는 경향을 보인다. 불철까지 나타 나던 열대야가 약화하면서 여 름철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가 을철에 라니냐로 진행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10월에 최대 2 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게다가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지속하 고 있다.

태풍의 에너지원인 수증기가 많아져 열대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교황 집전 대규모 미사 참여한 동티모르 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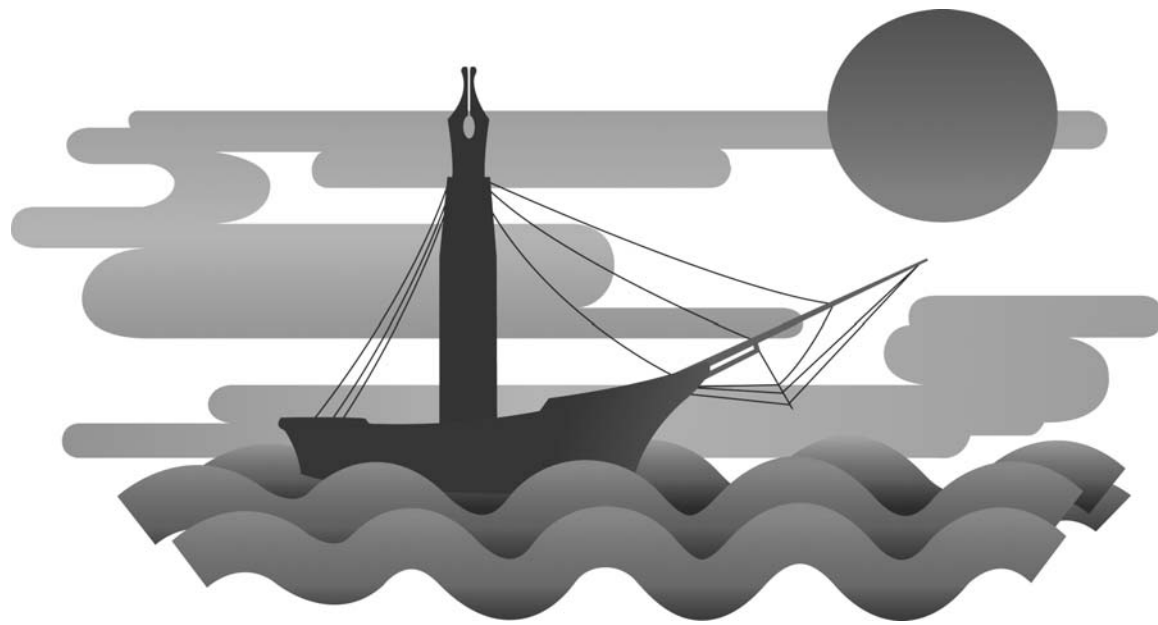


10일(현지시각) 동티모르 딜리의 타시틀루 공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대규모 미사가 열려 수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시리아에서 발견된 이스라엘 드론 추정 잔해



9일(현지시각) 시리아 중부 히마주 미시이프에 이스라엘 드론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흩어져 있다. 현지 당국은 이스라엘의 미시이프 군사 시설 공습으로 민간인 4명 포함 총 1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